10월 셋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10월 셋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가을의 깊어가는 숨결 속에서 찬양이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대표로 드리는 기도가 회중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아래 기도문을 따라 읽거나, 상황에 맞게 문장을 바꾸어 함께 기도해 보세요. 대표로 기도하는 이는 한 사람이라도, 성도들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문장을 그대로 읽어도 좋고, 교회의 형편과 지역의 필요에 맞게 한두 문장을 더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까지 또박또박 기도해 보세요. 필요하면 제목만 인용해도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10월 셋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1 감사와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1)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분주함과 마음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고, 마침내 이 자리에서 다시 숨을 고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가사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을이 깊어가며 날씨가 급격히 변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몸이 약한 성도들, 회복이 더딘 환우들, 지친 마음으로 예배에 온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계절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 보게 하옵소서. 숨 쉬는 것, 일터가 있는 것,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 넘어졌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것까지 모두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감사가 부족하면 불평이 자라고, 불평이 자라면 믿음이 마르나이다. 오늘 이 예배에서 감사의 샘이 다시 터지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비교의 눈길, 인정받고 싶은 마음, 불안의 속삭임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회중 가운데 세워 주소서. 우리가 높이는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감사가 예배당 문 앞에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도 우리의 말과 선택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작은 친절과 섬김으로 찬양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찬양 예배가 한 주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의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셋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2 회개와 새로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요한일서 1:9)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의 자리에서 먼저 우리 마음을 살피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날카로웠고 쉽게 판단했으며, 주님보다 내 계획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숨기고 싶던 죄와 습관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감각해진 죄를 깨우쳐 주옵소서. 말의 거칠음, 마음의 음란, 돈과 성취를 향한 탐심, 관계 속의 미움과

냉담함이 어느새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졌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의 굳어진 부분을 만지시고,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회개는 자책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용서로 다시 걸어가는 시작임을 믿습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게 하시고, 상처 준 말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 사과할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로 낮아질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가 ‘다짐’만 남기지 않게 하옵소서. 구체적인 순종을 주옵소서. 하루 한 번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가족을 위해 손잡고 짧게 기도하는 습관, 누군가를 위해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죄의 짐으로 고개 숙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정죄의 영이 아니라 회복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이 찬양 사이사이에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가 오늘 우리의 새 출발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셋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3 교회와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마태복음 5:14,16)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의 열기가 일시적인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깊이 주님을 닮는 것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안의 상처와 오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한 서운함, 역할과 책임 속에서 생긴 피로, 섬김의 불균형으로 인한 낙심이 있다면 주님이 만져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비난의 언어를 멈추고, 축복의 언어로 다시 세워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세대와 새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진로, 관계의 압박 속에서 흔들리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고, 교회가 ‘안전한 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처음 예배에 나온 이들이 낯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먼저 열어 환대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불확실한 일터 가운데서도 정직과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시간과 재정을 지혜롭게 나누게 하시며, 교회가 지역과 나라를 섬기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예배가 끝나는 자리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셋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4 가정과 치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집과 관계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차갑게 굴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셔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부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지친 대화가 쌓여 침묵이 익숙해진 가정이 있다면, 다시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첫 문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공격거리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품어 주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공부와 성적, 비교와 불안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눌리지 않게 하시고, 부모의 기대가 사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존귀함’을 배우게 하시며, 가정이 믿음의 첫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홀로 있는 성도들, 가족 안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이들, 돌봄의 책임으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사랑의 눈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처럼 가정에도 화평의 노래가 흐르게 하옵소서. 상처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화해를 선택하게 하시며, 감사와 축복의 말이 우리 집의 공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덮이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셋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5 나라와 열방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열방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불안과 갈등이 커지고,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평안을 만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두려움에 묶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옵소서.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과 공공의 영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가 무너진 자리에는 회복을, 약자가 외면받는 자리에는 보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진실을 덮지 못하게 하시고, 분열을 부추기는 말보다 화해를 이루는 지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너져 가는 가정과, 고용 불안 속에 마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이웃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버텨 주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을 나누어 누군가의 내일을 지키게 하옵소서. 열방을 위해 중보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땅에 길을 여시고,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의 안전과 지혜를 지켜 주시고, 우리가 멀리 있는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결국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서 시작된 기도가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배가 끝나도 우리의 무릎이 풀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자리에서 작은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셋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6 일터와 학업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골로새서 3:23)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서 올려 드린 고백이, 내일의 출근길과 학교 복도에서도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성취로 나를 증명하려는 불안 대신, 주님 안에서 이미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직장과 일터에서 지친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과 압박, 관계의 스트레스, 반복되는 실수로 낙심하는 마음을 아시니, 주님이 지혜와 평안을 부어 주소서. 정직이 손해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밟아 올라서지 않게 하시며, 작은 일에서도 주님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학업 중인 학생들과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집중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 주님이 길을 정돈해 주시고, 쉼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건강한 휴식을 허락해 주소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무너져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도 배우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재정과 계획을 지켜 주소서. 물가와 생활비의 부담 앞에서 마음이 위축될 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무리한 욕심으로 가정을 흔들지 않게 하시고, 가진 것을 나눌 때 오히려 마음이 넉넉해지는 하늘의 질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내일의 태도를 바꾸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작은 성실함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일터와 학교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셋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7 환우와 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28)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버틴 이들이 주님께 나아옵니다. 찬양 예배의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멀게 들렸을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의 깊은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픈 몸과 상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가운데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치료 중인 환우들에게 필요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통증과 불안, 반복되는 검사와 기다림 속에서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의료진에게는 정확한 판단과 따뜻한 손길을 허락해 주소서. 회복의 과정이 더딜지라도, 그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돌봄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질 듯한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짐을 나누는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숨을 고르는 성도들도 기억해 주옵소서. 불면과 우울, 공황과 두려움으로 하루가 길게 느껴질 때, 주님이 그 밤을 지나게 하시고, 안전한 사람들과 도움의 길을 허락해 주소서.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기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서로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눈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도 한 통의 안부,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기도로 사랑을 이어가게 하시며, 주님의 위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다음 예배와 말씀의 흐름도 함께 살피며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